안전,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작은 실천에서

新豊製紙株式會社 **신풍제지(주)**

■ 新文化豊,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신풍제지 주식회사(대표 정순길)는 1960년 1월에 창업하여 40여년을 백판지만을 생산하는 장인정신의 길을 걸어왔다. 종이를 개발, 생산하는 일이 역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창업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제지업계를 개척하였다. 또한 현재 연간 생산량 고급아이보리 판지-50,000톤, 코팅 마닐라 판지-335,000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제지회사이기도 하다. 新文化豊이라는 경영이념아래 새로운 문화 발전의 선도적 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으며 인화단결, 경영쇄신, 책임완수라는 사훈이 보여주듯이 관리직, 현장직의 구분 없이 모두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백판지 업계에서 시장점유

"안전에 "완벽"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덧셈과 뺄셈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하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어렵다고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2가지
다시 2가지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간다면 분명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박종현 안전관리자

율 3위를 고수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한창제지와 공동 판매 법인을 설립(다비페이퍼)하여 신풍제지는 저평량 위주의 생산, 한창제지는 고평량 위주의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업체 간 협력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다.

■ 안전의 시작 기초부터 단단히

백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제지업체로 장치산업에 속한 이곳 신풍제지(주)는 순수 생산 공정만 보면 185m에 이르는 거대한 초지기를 통한 One Line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얼핏 보면 공정이 간단하여 사고의 위험이 없을 것라 생각할 수 있지만 회전체에 의한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위험, 다수의 지게차 이용에 따른 위험, 설비 보전에 있어서의 다양한 유형의 재해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제지생산에 있어 원료로 고지 사용의 비율이 높아 분진에 따른 위험이나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종이를 다루다 보니 철저한 방화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산재되어 있는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곳 신풍제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5S활동이다.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는 안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박종현 안전관리자는 이 활동을 통하여 사고 위험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에서는 공장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자 및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모여 점검과 현장 근로자들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선별, 이의 효율적 개선방법에 대한 아이디

▲ 좌 : 초조과 최재광 대리, 우 : 이기만 반장

▲ 좌 : 완성과 조용국 대리, 우 : 임영선 반장

▲ 좌 : 완성과 정경로 사원, 중 : 최원용 과장, 우 : 최한수 반장

어 회의를 열고 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관련부서의 협조에 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월 3회)에는 정기안전교육외 30분씩 신풍제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모두에게 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천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공정에 따른 위험 예방을 위한 노력들

이 곳 신풍제지(주)는 크게 조성 → 초조 → 완성의 3단계 제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조성단계에서는 고지와 펄프를 물과 배합하여 해리시킴으로써 원료를 초조단계로 공급하고 이를 이용해 초조에서 최초 백판지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백판지는 완성단계에서 필요한 규격별로 재단하여 시트(Sheet)상태의 제품으로 만들며 이 후, 포장단계를 거쳐 창고에 적재 혹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출하한다. 이러한 일련의 생산과정은 기계설비로 인한 자동시스템이지만 일부 보조작업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하는데 특히 초조과정에서 종이를 롤과 롤 사이로 연결시켜야 하는 작업이 가장 위험하다고 한다. 수톤이 넘는 거대한 롤로 인한 회전체 위험은 중대사고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맡는 작업자에게는 특별안전교육을 따로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항상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숙련된 작업자를 배치하고 있다. 완성과정에서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통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종 리프트를 구입하여 가능한 수작업 부분을 줄였으며 최근 탈의실에 체력단련기기를 설치하여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직원들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 2008년 새롭게 시작되는 안전

현재 많은 부분에서 안전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설비의 노후와 2008년 이전 계획에 따른 부담으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전과 함께 이곳 신풍제지(주)에서는 새로운 안전을 위한 도약으로 안전에 대해 재설계를 꿈꾸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부터 설비 부분에서는 설비 설계초기에서부터 위험과 그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관리 부분에서는 전사적 차원의 ESH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새로운 공장 이전과 신설 장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이 우선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커다란 무재해로 가는데 튼튼한 다리가 되길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

■ Interview...

안전,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활동이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등한시 한다면 생산 활동 자체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요, 물건을 쓰는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즉 우리 신풍제지(주)의 근로자분들입니다. 사람, 근로자의 행복은 바로 안전한 일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모든 우리 근로자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풍제지(주) **변 진 호** 공장장